

〈직장 여성의 엄마젖 먹이기 체험수기〉

580 일간의 행복한 여행

김경란

모유로 키우고 싶어요!

2001년 11월 13일 건강한 아들과 만났다. 진통을 하면서도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 모유수유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30분내에 첫 젖물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아이를 받아내던 그 병원에서는 첫 젖물리기도 시도해주지 않았고 젖물리기 전에 보리차만 먹여달라는 요청도 무시했다.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던날 신생아실에 가서 이이에게 젖물리기를 시도했다. 아이는 이미 분유를 먹고 있었다. 첫 젖물리기는 평화롭거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 목도 못 가누는 만지면 부서질 것같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것은 초보엄마인 내게는 서커스 묘기에 가까웠다.

퇴원해서 집에 온 이후 혼합수유를 3일간 더 진행하다가 아이 태어난지 일주일만에 완전히 모유수유를 할 수 있었다. 처음과 달리 아이가 잘빨아주어서 젖몸살도 없었다. 노랗고 오렌지빛이 도는 초유는 2주정도 나왔다. 한쪽 젖을 아이가 빨면 다른 쪽 젖이 분출되는 경험을 하면서 젖먹이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젖을 먹이는 시간은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역과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래도

오물오물 혀를 움직이며 젖을 빠는 사랑스러운 아이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다.

젖병을 거부하는 아이

아일 낳고 60일이 지나서 첫 번째 위기가 왔다. 2주 후면 학교에 돌아가야 하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젖병에 담아준 젖을 잘 빨던 아이가 젖병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특하게도 젖병에도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방심한 사이 아이는 젖꼭지와 젖병을 구별해냈고 젖병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출근 이틀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이를 하루 종일 울렸다. 젖병을 거부하고 우는 아이에게 계속 젖병을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불어오르는 젖을 유축기로 짜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결국 젖병으로 먹는 연습도 못시키고 출근을 했다. 새벽 5시경 젖을 먹고 출근 직전 유축기로 짜둔 젖을 중탕해서 먹여달라고 부탁하고 점심에 내가 집에 가서 젖을 직접 먹이고, 오후엔 오전 중에 학교에서 짠 적을 먹이고, 퇴근 후에 직접 먹이자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창고처럼 어수선하고 추운 휴게실에서 유축기로

젓을 짜던 첫날 아이가 젓병을 거부하며 얼마나 할머니의 속을 태울까 걱정이 많았다.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 시간을 집에 가보니 아이는 신기하게도 엄마인 내가 젓병을 들이댈 땐 그토록 거부하더니 엄마가 아닌 사람이 젓병을 주니까 마지못해 먹더라. 그렇게 해서 직장 다니며 젓먹이기의 행복하고도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다.

선생님 도시락 가방이에요?

보냉가방을 하나 장만했다. 젓 병 두 개와 깔대기, 냉매를 넣은 가방은 두툼한 도시락 가방 같은 천가방이었다. 가끔 등교길에 만나는 아이들은 내가 들고 가는 이상한 가방에 관심을 보이곤 했다. 우리 학교는 급식이 실시되는 학교인데 도시락 가방같이 두툼한 천가방을 들고 가니 이상하게 보였던가 보다.

“선생님 도시락 가방이에요?”

“응.”

“선생님은 점심 시간에 댁에 가서 점심 드시잖아요.”

“그래, 이전 내 도시락이 아니라 내 아이 도시락이야.”

물을수록 더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점심 시간마다 교문을 빠져나가서 혈레벌떡 돌아오는 내 모습을 목격한 아이들도 많았다. 내가 가르치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교과와 관련도 없는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직장 다니면서 젓을 먹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길 빌었다.

젓먹이는 엄마의 직장 생활

모유로 키우고 싶다는 소릴 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동료 교사들은 고가의 유축기를 구입

해서 젓을 짜고 점심마다 집으로 달려가 젓을 먹고 오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 맞춰 젓을 짜고 점심마다 집을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동료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극성이라는 말도 여러 번 듣고, 징그럽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학교 교감 선생님은 사립에서 근무하는 내 입장을 염려하셔서 젓을 그만 먹이라는 종용을 하신 적도 있다. 내가 이렇게 젓먹이는 문제로 학교에 피해(?)를 입히면 앞으로 여교사를 채용하겠냐는 전체 여교사의 평점이 깎이는 문제라는 소리 앞에서 정말 용기도 의욕도 잃었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직도 젓을 먹이냐고 원시인 대하듯 하는 선생님들도 많았다.

행복한 580 일 간의 여행

아이는 다행히 초보엄마의 서툰 손에서도 잘 자랐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어김없이 젓을 찾아 옷을 올리고 만족한 모습으로 젓을 먹는다. 가만히 젓을 먹는다. 가만히 냄새를 맡다보면 젓 냄새가 아이 살 냄새와 함께 맡아진다. 내 아이 오늘로 18개월 2일째. 다들 아직도 젓을 먹이냐고 물으신다. 태어날 시기를 아이가 스스로 정해서 태어났듯이 아이가 젓떨 때가 되면 스스로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달이나 더 아이에게 젓을 물릴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이 달콤하고 행복한 여행도 언젠가는 끝내야 할 것이다.

아이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젓을 먹이는 순간은 내게도 큰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다.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갖게 되는 안쓰러움과 죄의식(?)을 덜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여행의 끝이 보이는 요즘 그렇게 열심히 먹였음에도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없진 않다.

돌아보면 참 행복한 여행이었다. 121